

# 독해

실전 시험 105~107

정답 및 해설

정답 : ㉠ 4 ㉡ 4

A와 B는 콤팩트시티에 대한 기사이다

A

日本は 2025 年ごろになると、車を運転できない高齢者が急増してしまう。今のように通勤から通院、買い物までも車に頼っている都市構造では生活しにくくなる。そうなる前に住宅や商業・福祉施設などを一定の区域に集約しようという考えが広がりつつある。コンパクトな構造に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ためだ。

中でも重要なのが住宅の立地ではないか。近場に駅やバス停があったり、徒歩で移動できる街に徐々に変えていく必要がある。そうすることで、車への依存を改められるだろう。

しかしながら、今、居住区域の縮小に積極的な地域がある一方で、先送りしているところもある。一刻も早く人口減少時代の都市のあり方について国も私たちも一層真剣に取り組むべきではないか。

B

都市部へ商業施設や福祉施設、医療機関が集中することにより高齢者の体への負担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また集中した地域に人口が集まることで福祉サービスが向上すると予想できます。

その一方で、故郷でもある地域が消滅してしまう可能性が生まれます。生活に支障が出るといって、住み慣れた土地を捨ててまで、都市に暮らすメリットを感じられない人も多いはずだ。

また、郊外にすでに設置されている施設の移動も容易ではない点も、問題点の一つとして挙げられます。多数の問題点を抱えている点は無視できず、コンパクトシティを推進している都市でも、今後の推進について繰り返し議論が行われています。

<1> コンパクトシティ計画を進める上で何が重要だと考えているか。

1. Aは車がなくても自由に行動できること、Bは繰り返し議論を行うこと
2. Aは積極的に取り組むこと、Bは高齢者の体の負担を減少すること
3. Aは人口減少の原因を知ること、Bは施設の移動を推進すること
4. Aは人口減少前に行動をすること、Bは様々な課題を放置しないこと

<2> AとBに共通していることは何か。

1. コンパクトになれば、今より向上した医療や福祉のサービスと技術を受けられること
2. コンパクトシティを進めていく上で、生じる問題が多いということ
3. コンパクトな構造にしていくことに、積極的な都市が存在すること
4. 人口減少は避けられず、今より生活に不便な部分が発生すると考えていること

<어휘>

高齢者 こうれいしゃ 고령자 急増 きゅうぞう 급증 都市構造 としこうぞう 도시 구조 商業施設 しょうぎょうしせつ 상업 시설 福祉施設 ふくししせつ 복지 시설 区域 くいき 구역 集約 しゅうやく 집약 立地 りつち 입지 近場 ちかば 근처 徐々に じょじょ 서서히 依存 いぞん 의존 地域 ちいき 지역 縮小 しゅくしょう 축소 積極的な せつきよくてき 적극적인 先送りする さきおく 미루다, 보류하다 一刻 いっこく 일각, 짧은 시간 一層 いっそう 더욱 真剣な しんけん 진지한 取り組む とく 몰두하다 医療機関 いりょうきかん 의료기관 集中 しゅうちゅう 집중 負担 ふたん 부담 最小限 さいしょうげん 최소한 抑える おさ 억제하다 向上する こうじょう 향상되다 消滅 しょうめつ 소멸 支障 ししょう 지장 住み慣れる すみな 살아 정들다 メリット めりっと 장점, 메리트 容易な ようい 쉬운, 용이한 多数 たすう 다수 コンパクトシティ コンパクトシティ 컴팩트 시티, 고밀도 집적 도시 推進 すいしん 추진 繰り返す くかえ 반복하다 議論 ぎろん 논의

<해석>

A와 B는 컴팩트 시티에 대한 기사이다

A

일본은 2025 년경이 되면,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고령자가 급증해 버린다. 지금까지 통근에서 통원, 쇼핑까지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구조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기 전에 주택이나 상업·복지 시설 등을 일정한 구역에 집약하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컴팩트한 구조로 해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주택의 입지가 아니겠는가? 가까운 곳에 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마을로 서서히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에 대한 의존을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주구역의 축소에 적극적인 지역이 있고, 보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한시라도 빨리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형태에 대해 정부도 우리들도 더욱 진지하게 몰두해야 하지 않을까?

B

도시부로 상업시설이나 복지시설, 의료기관이 집중함으로써 고령자의 신체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된 지역에 인구가 모임으로써 복지서비스가 향상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고향이기도 한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생활에 지장이 나온다고 해서, 정든 땅을 버리면까지 도시에 사는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교외에 이미 설치된 시설의 이동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으며, 컴팩트 시티를 추진 중인 도시에서도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컴팩트시티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1. A 에 자동차가 없어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 B 는 반복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
2. A 는 적극적으로 몰두할 것, B 는 고령자의 몸의 부담을 줄일 것
3. A 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아는 것, B 는 시설의 이동을 추진하는 것
4. A 는 인구가 감소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 B 는 다양한 과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

<2>A 와 B 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1. 컴팩트해지면, 지금보다 향상된 의료복지 서비스와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 컴팩트 시티를 추구하는 데 있어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것
3. 컴팩트한 구조로 해나가는 것에 적극적인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
4.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며, 지금보다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정답 : ㉠ 2 ㉡ 3

A

IT企業で働くある男性には、専業主婦の妻と3歳と1歳の子供がいます。専業主婦でも奥さんは乳幼児2人の世話をするのは大変なので、男性と家事と育児を分担しています。男性は平日には夜8時頃には帰宅し、子供たちをお風呂にいれ、週末には掃除、食料品の買い出しに行きます。週末には奥さんが少しでも1人の時間をもてるように、子供たちを近くの公園に連れていきます。週末には男性自身の時間はまったくとれません。ある月には、新商品のリリース（注1）のため月80時間も残業をし、週末も仕事の電話、もちろんこれが原因で夫婦喧嘩になりました。

B

出版社に勤めるある男性には、共働きの妻と3歳になる子供と暮らしていました。帰宅時間の遅い男性は朝の家事や育児を、妻は夕方以降を担当していました。男性は朝起きてから、皿洗いをし、朝食を作って子供に食べさせ、保育園に送っていきます。ある日、妻が高熱で寝込み、男性は残業をせずに通常業務を終え退社しました。保育園に迎えに行き、子供を風呂にいれたあと、スマホをみると上司からの着信が10件も。「電話に出ろ、仕事はどうした」という怒りの留守電。妻に報告すると、「仕事は育児しない言い訳にならない」と怒られる始末。男性のように仕事と育児の板挟み（注2）で、ストレスがたまる男性が急増。

（注1）リリース：発売。

（注2）板挟み<sup>いたばさ</sup>：対立する二つの間に立って苦しむこと。ジレンマ。

<1> AとBの記事に共通する主題はなにか。

- 1 育児の大変さと仕事
- 2 父の育児と仕事
- 3 育児による夫婦喧嘩
- 4 家庭内への仕事の持ち込み

<2> AとBの記事として正しいものはどれか。

- 1 Aの男性もBの男性もともにストレスを感じている。
- 2 Aの男性もBの男性も仕事が忙しく、育児ができない。
- 3 Aの男性は仕事が原因で、Bの男性は育児が原因で夫婦げんかになった。
- 4 Aの男性は朝に、Bの男性は夕方に主に子育てをする。

<어휘>

IT 정보통신기술 기업<sup>きぎょう</sup> 기업<sup>せんぎょうしゅふ</sup> 専業主婦 전업 주부<sup>にゅうようじ</sup> 영유아<sup>이쿠지</sup> 育児 육아<sup>ぶんたん</sup> 분담  
 帰宅 귀가<sup>きたく</sup> 買い物<sup>か</sup> 出し<sup>だ</sup> 장보기<sup>ふうふげんか</sup> 夫婦喧嘩<sup>ふうふ</sup> 싸움<sup>ともばたら</sup> 共働き<sup>맞벌이</sup> 맞벌이<sup>さらあら</sup>皿洗い 설거지<sup>ほいくえん</sup> 保育園  
 보육원<sup>こうねつ</sup> 高熱<sup>고열</sup> 寝込む<sup>ねこ</sup> 잠들다<sup>ざんぎょう</sup> 잔업<sup>ぎょうむ</sup> 업무<sup>たいしゃ</sup> 퇴社<sup>퇴근</sup> 스마트폰  
 着信<sup>ちゃくしん</sup> 착신<sup>いたばさ</sup> 板挟み<sup>이타바사</sup> 갈림길, 딜레마<sup>기유구</sup> 급증

<해석>

A

IT 기업에서 일하는 어느 남성은 전업주부인 아내와 3 세와 1 세의 아이가 있습니다. 전업 주부일지라도 부인은 영유아 둘을 돌보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남성과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평일에는 밤 8 시경에는 귀가해서,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주말에는 청소, 식료품을 사러 갑니다. 주말에는 부인이 조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근처의 공원으로 데려갑니다. 주말에는 남성 자신의 시간은 전혀 낼 수 없습니다. 어떤 달에는 신상품의 발매때문에 월 80 시간이나 잔업을 하고, 주말에도 업무 전화, 물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부부 싸움이 되었습니다.

B

출판사에 근무하는 어느 남성에게는 맞벌이하는 부인과 3 세가 되는 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은 남성은 아침의 가사와 육아를, 부인은 저녁 이후를 담당했습니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설거지를 하고 아침을 만들어 아이에게 먹이고 보육원에 보내러 갑니다. 어느 날 부인이 고열로 드러누워, 남성은 잔업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보육원에 마중하러 가서, 아이를 목욕시킨 후에, 스마트폰을 보았더니 상사로부터의 착신이 10 건이나. “전화를 받아. 일은 어떻게 된거야?” 라는 분노의 응답전화. 아내에게 보고했더니 “ 일은 육아를 하지않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꾸중을 듣게 되는 지경이었다. 남성처럼 일과 육아 사이의 딜레마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남성이 급증.

<1> A 와 B 의 기사에 공통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 1 육아의 어려움과 일
- 2 아버지의 육아와 일
- 3 육아에 의한 부부 싸움
- 4 가정으로 일을 가져오는 것

<2> A 와 B 의 기사로 올바른 것은 어느것인가?

- 1 A 남자도 B 남자도 함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 2 A 남자도 B 의 남성도 일이 바빠서 육아가 어렵다.
- 3 A 의 남성은 일 때문에 B 의 남성은 육아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다.
- 4 A 의 남성은 아침에 B 남자는 저녁에 주로 육아를 한다.

정답 : ㉠ 4 ㉡ 3

次の A と B は新しくなる大学試験に対する意見である。

A

既存の大学入試試験に代わり2020年度から実施される「大学入学共通テスト」の原案が公表された。知識に加え、大学で必要となる思考力、判断力、表現力の評価を重視するという。新テストの目的と期待される効果を丁寧に説明し周囲の不安を取り除くべきだ。

そもそも新テストは、高校と大学教育を円滑に接続させようという構想から出発した。マークシートのように1点刻みで可否を判定する試験から、到達度評価に転換するのだ。そして、二次試験で各大学が記述式問題などで丁寧に学力を判定する。これが狙いだったはずだが、英語と数学を除きおおむねマークシート式問題のままだ。

新テストの機能は既存の試験とどこが違うのか。最も重要な部分が曖昧ではないだろうか。これが改革の第一歩なのか。将来の方向性を明示する責任がある。

(「大学新入試は何をめざすのか」日本経済新聞による)

B

導入が迫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解決すべき課題は山のように多い。

新テストの特徴は国語と数学の問題に記述式を導入し、英語では民間の資格・検定試験を活用する。英語の試験は高校3年在学時に実用英語技能検定やTOEFLなどを自ら選択して受け、各大学は、その結果を入試の成績に用いる。「読む」「聞く」だけでなく、「話す」「書く」を加えた総合的な英語力を判定する。

その狙いは理解できるが、問題は、民間テストで必ずしも高校の学習指導要領に従っていない。国や大学は、問題の質を入念に見極めることが大切だ。教育現場の声に耳を傾け、最終判断を下すことが肝心である。

(「大学新入試案受験生の力を適切に測りたい」読売新聞による)

<1> AとBの新テストについての問題定義の視点はどのようなものか。

1. Aは導入される評価方法が不安だとし、Bは評価が公平であるのか指摘している。
2. Aは従来の評価基準が曖昧だと述べ、Bは民間テストは不適切だと見ている。
3. Aは改革された部分が明白じゃなく、Bは評価法を見直すべきと報告している。
4. Aは従来との相違が分かりにくく、Bは学力を適正に測れないと述べている。

<2> Aの主張として正しいものはどれか。

1. 英語は数学では、マークシート式テストを採用して到達度評価を簡単にすべきだ。
2. 民間テストを最大限活用し、高校の学習指導要領の方針を貫くべきだ。
3. 新しい大学入試の将来の方向性を明確に提示すべきだ。
4. マークシート式問題はすべての科目で廃止すべきだ。

<어휘>

既存 <sup>きぞん</sup> 기존 <sup>きょうつう</sup> 공통 <sup>げんあん</sup> 원안 <sup>こうひょう</sup> 공표 <sup>しこうりょく</sup> 사고력 <sup>はんだんりょく</sup> 판단력  
<sup>ひょうげんりょく</sup> 표현력 <sup>ひょうか</sup> 評価 <sup>じゅうし</sup> 평가 <sup>중시</sup> 重視 <sup>と</sup> 중시 <sup>제거하다</sup> 取り除く <sup>えんかつ</sup> 円滑한 <sup>せつぞく</sup> 接続 <sup>접속</sup>  
<sup>こうそう</sup> 構想 <sup>きざみ</sup> 刻み <sup>여기에서는</sup> ‘간격’ <sup>의 의미</sup> <sup>숨짐</sup> 合格 여부 <sup>판정</sup> 判定 <sup>하루</sup> 到達度 <sup>도달도</sup>  
<sup>달성도</sup> 転換 <sup>전환</sup> 記述式問題 <sup>기술식</sup> 문제 <sup>判定</sup> 判定 <sup>판정</sup> おおむね <sup>대체로</sup> マークシート式 <sup>마크</sup>  
<sup>시트식</sup> 曖昧な <sup>애매한</sup> 改革 <sup>개혁</sup> 第一歩 <sup>첫걸음</sup> 明示 <sup>명시</sup> 責任 <sup>책임</sup> 導入 <sup>도입</sup>  
<sup>도입</sup> 迫る <sup>다가오다</sup> 압박하다 <sup>특징</sup> 特徴 <sup>도입</sup> 導入 <sup>도입</sup> 実用 <sup>실용</sup> 技能 <sup>기능</sup> 検定 <sup>검정</sup>  
<sup>검정</sup> 総合的な <sup>종합적인</sup> 狙い <sup>목적</sup> 目的 <sup>의도</sup> 学習指導要領 <sup>학습</sup> 지도 <sup>요령</sup> 要령(일본 문부성의  
교과편성 등의 기준) <sup>따르다</sup> 従う <sup>복종하다</sup> 入念に <sup>꼼꼼하게</sup> 入念に <sup>치밀하게</sup> 見極める <sup>판별하다</sup>  
<sup>판별하다</sup> 現場の声 <sup>현장의 목소리</sup> 最終 <sup>최종</sup> 肝心な <sup>중요한</sup> 重要な

<해석>

다음 A 와 B 는 새로워진 대학입시에 대한 의견이다.

A

기존의 대학 입시 시험 대신 2020 년도부터 실시되는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의 원안이 공표되었다. 지식외에 대학에서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의 평가를 중시한다고 한다. 새 테스트의 목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꼼꼼하게 설명하여 주변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

원래 새 테스트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원활히 접속시키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마크시트처럼 1 점 단위로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에서 성취도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2 차 시험으로 각 대학이 주관식 문제 등으로 꼼꼼하게 학력을 판정한다. 이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영어와 수학을 제외하고 대체로 마크시트식 문제 그대로다.

새로운 평가의 기능은 기존 시험과 어디가 다른 것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호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개혁의 첫걸음인 것인가? 미래의 방향성을 명시할 책임이 있다.

( ‘대학 새 입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출처:일본경제신문)

B

도입이 다가오는데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많다.

새로운 평가의 특징은 국어와 수학 문제에 기술식을 도입하고 영어에서는 민간 자격·검정 시험을 활용한다. 영어 시험은 고교 3 년 재학시절 실용영어기능검정이나 TOEFL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험하고, 각 대학은 그 결과를 입시 성적에 활용한다. “읽기”, “듣기”를 추가한 종합적인 영어 실력을 판정한다.

그 목적은 이해하지만 문제는 민간시험에서 꼭 고교학습지도요령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대학은 문제의 질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 새 입시안, 수험생의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싶다’ , 출처:요미우리 신문)



<1> A와 B의 새 테스트에 관한 문제 정의의 관점은 어떠한 것인가?

1. A는 도입하는 평가방법이 불안하다고 하며, B는 평가가 공평한지 지적하고 있다.
2. A는 기존의 평가기준이 모호하다고 서술하고, B는 민간시험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3. A는 개혁된 부분이 명백하지않고, B는 평가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4. A는 종전의 시험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B는 학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 A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1. 영어와 수학에서는 마크시트식 시험에 의한 달성도 평가를 간단하게 해야한다.
2. 민간테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관철시킨다.
3. 새로운 대학 입시의 장래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4. 마크시트식 문제는 전과목에서 폐지해야 한다.